

9월 6일 수능 모의평가

국어 영역

1 교시

공통 - 독서, 문학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⑤ 19 ② 20 ③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①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①

선택 -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④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⑤ 45 ⑤

선택 -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② 42 ⑤ 43 ① 44 ③ 45 ④

출제 문항 분석 - 공통(독서, 문학)

문항	정답률	제재	출제 의도
1	96.9	독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
2	97.8	독서	내용 추론하기
3	92.7	독서	〈보기〉의 견해와 비교하기
4	84.3	사회	세부 내용 파악하기
5	48.1	사회	관점에 따라 내용 이해하기
6	65.8	사회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7	89.4	사회	바꿔 쓰기
8	78.3	과학·기술	내용 이해하기
9	78.9	과학·기술	세부 내용 이해하기
10	62.8	과학·기술	세부 내용 이해하기
11	40.1	과학·기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12	59.6	인문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13	54.9	인문	특정 관점 이해하기
14	60.5	인문	맥락의 의미 파악하기
15	33.3	인문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16	43.2	인문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17	97.2	인문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판단하기

문항	정답률	제재	출제 의도
18	89.4	고전 소설	등장인물 이해하기
19	66.9	고전 소설	발화의 의도 파악하기
20	81.0	고전 소설	발화 맥락의 의도 파악하기
21	56.2	고전 소설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22	95.5	갈래 복합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23	59.0	갈래 복합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24	91.6	갈래 복합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25	94.0	갈래 복합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26	56.8	갈래 복합	내용 이해하기
27	41.5	갈래 복합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28	94.2	현대 소설	인물과 사건 파악하기
29	81.0	현대 소설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30	68.4	현대 소설	인물의 행위 이해하기
31	78.8	현대 소설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32	88.0	고전 시가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33	69.7	고전 시가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34	46.0	고전 시가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출제 문항 분석 - 선택(화법과 작문)

문항	정답률	출제 단위	출제 의도
35	97.4	화법	말하기 전략 이해하기
36	97.2	화법	자료 활용하기
37	97.8	화법	청중의 질문 추론하기
38	77.3	화작 통합	발화 맥락 이해하기
39	90.2	화작 통합	말하기 계획 이해하기
40	48.0	화작 통합	담화 내용 반영하기
41	78.5	화작 통합	발화의 의도 이해하기
42	71.5	화작 통합	초고 수정하기
43	97.8	작문	초고 계획하기
44	79.1	작문	조건에 맞는 결론 작성하기
45	80.6	작문	자료 활용 방안 이해하기

출제 문항 분석 - 선택(언어와 매체)

문항	정답률	출제 단위	출제 의도
35	23.2	언어	복합어의 구성 이해하기
36	67.6	언어	제시문에 근거하여 자료 이해하기
37	68.9	언어	음운 변동 이해하기
38	80.1	언어	피동·사동에서 높임 표현 이해하기
39	62.4	언어	중세 국어의 문장 성분 이해하기
40	96.4	매체	의사 소통 방식 파악하기
41	93.2	매체	매체 수용자들의 태도 파악하기
42	63.9	매체	매체 자료 제작하기
43	64.7	매체	매체 언어의 표현 이해하기
44	98.0	매체	매체의 특징 파악하기
45	87.2	매체	매체 이용자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출제 경향 및 학습 대책

이번 9월 모의평가 시험은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기존 고난도 문항은 배제했지만 선택지 난이도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독서 영역은 독서, 사회, 과학, 인문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이 중 인문 지문(12~17번)과 과학 지문(8~11번)이 어려웠다. 인문 지문은 조선 후기 신분제와 관련된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추론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고 선택지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했다. 특히 15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 지문은 압전효과와 관련된 지문으로 이 지문 역시 수험생들이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추론의 난이도 또한 높았다. 과학 지문에서는 특히 11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두 지문 모두 EBS 지문과 연계된 것으로 인문 지문은 2023년 EBS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수록된 내용이었고, 과학 지문은 2023년 EBS 수능특강 과학기술 7장의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에 수록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지문을 접했을 때 크게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학 영역은 고전 소설, 갈래 복합, 현대 소설, 고전시가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갈래 복합 지문(22~27번)이 어려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27번 문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EBS 연계와 관련해서는 박용래의 「월훈」,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정철의 「성산별곡」 등의 작품이 출제되었다. 문학 영역은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독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독서와 문학의 난이도 균형을 맞추려는 평가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난도 문항은 역시 배제되었다.

선택과목 중 화법과 작문은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언어와 매체는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기초를 어느 정도 따른 만큼 수험생들은 두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 동영상 보기]

이번 시험의 분석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03] (독서) '읽기 준비 단계'

【지문 해설】

- **해제** :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단계의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행된다.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지도가 필요하다.
- **주제** : 읽기 준비 단계의 특징

1 |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 ②

3문단에 의하면 '영·유아의 의사소통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고 했으므로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에 의하면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 단계가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 ③ 2문단에 의하면 '영·유아는~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듯이 알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1문단에 의하면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1문단에 의하면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가 '학습 목적으로 읽기'보다 선행하므로 적절하다.

2 | 내용 추론하기

정답 : ③

1문단에 의하면 '읽기 준비 단계'는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보다 선행하므로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3문단에 의하면 영·유아가 '글자를 모르지만 '책 읽는 흥내'를 내고,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3문단에서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3문단에서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을 알

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거'린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서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 | <보기>의 견해와 비교하기

정답 : ③

<보기>에서 읽기 지도는 성숙한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에서 읽기 발달은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③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A]만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를 강조한다.
- ② [A]만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④ <보기>만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 ⑤ <보기>만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04~07] (사회) '데이터 이동권과 데이터 경제'

【지문 해설】

- **해제** : 빅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데,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는 논의 중심이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어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반면,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공유, 유통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주제** :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에 따른 경제적 가치

4 |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 ③

3문단에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 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의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 재사용이 수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1문단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 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의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 끝에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5 | 관점에 따라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⑤

[A]에서 ‘⑦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이 데이터를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 아닌 ㉡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다.
- ② [A]에서 ‘거래 비용은 ~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데 ‘데이터를 받으면 절감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B]에서 ‘기존 기업이 집적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고 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고, 시장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다.
- ④ [B]에서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A]에서는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된다고 했으므로 [B]와는 다른 견해이다.

6 |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 ④

3문단에 의하면,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든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A은행이 분석 가공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3문단에 의하면 ‘정보 주체’인 ‘갑’이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데이터를 보유한 자’인 A은행은 ‘정보 주체가 지정한 제3자’인 B은행으로 ‘데이터’인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해야 한다.
- ② 3문단에 의하면 ‘데이터 이동권을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는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갑이 A은행으로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서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7 | 바뀐 쓰기

정답 : ①

‘쉬워져’는 ‘용이(容易)해져’와 바꾸어 쓰기 적절하고, ‘따라’는 ‘근거(根據)하여’와 바꾸어 쓰기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유력(有力)하다 : 가능성이 많다.
- ③ 의탁(依託)하다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 ④ 원활(圓滑)하다 :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
- ⑤ 기초(基礎)하다 : 근거를 두다.

[08~11] (과학·기술) ‘초정밀 저울’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압전 효과를 활용한 초정밀 저울이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제시하고 이 원리를 응용하여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압전 효과를 활용한 초정밀 저울의 원리

8 |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⑤

윗글은 초정밀 거울이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압전 효과를 설명한 뒤 3문단에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4, 5문단에서 그 원리를 응용하여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3문단 첫 문장에서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는 부분에서 제작 방법을 소개했지만, 압전체 제작 시 유의 점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②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그 분류에 따른 구조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 ④ 압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제작 방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9 |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④

3문단에서 고유 주파수는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정의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진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압전체로 수정이 주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② 1문단에서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초정밀 저울이라고 하였고, 3문단 첫 문장에서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1문단 첫 문장에서 저울이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질량 민감도는 진동자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0 |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⑤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를 압

전체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진동을 측정하게 된다.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란 그 물체가 갖는 고유 주파수로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서 수정은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3문단에서 수정을 원판 모양으로 만든 뒤 양면에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수정을 원판 모양으로 만든 뒤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 ②

3문단에서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알코올의 양은 그대로인데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면 질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주파수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5문단에 따르면, 혼합 기체에서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만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의 농도에 따른 압전체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놓아야 한다.
- ③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의 질량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하려면 전압의 주파수를 진동자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야 한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어 구한다.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었을 때의 주파수 변화 정도가 더 크다면, 분모는 동일하지만 분자 값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전체 값인 농도에 대한 민감도 또한 크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특정 기체가 수정 진동자에 얼마나 빨리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 즉 특정 기체가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 한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면 반응 시간도 B가 A보다 짧다.

[12~17] (인문) (가) ‘조선 후기 유학(幼學)의 증가’ (나) ‘유형원과 정약용의 신분개혁론’

[지문 해설]

- **해제** : (가)는 조선 시대 신분제가 16세기 이후 변동된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나)는 조선 후기 유형원과 정약용의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신분제 개혁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상가의 개혁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 조선 시대 신분제 변동 과정과 개혁 방안

12 |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 ④

2문단에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일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신분 체제인 양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1문단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와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

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 특정 관점 이해하기

정답 : ⑤

2문단에서 유형원은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문단에서 정약용은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 맥락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③

상민층에서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약용이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려는 입장인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의 경우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은 양반층의 노력이 아니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③ ㉠은 양반층의 노력이 아니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이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으며, ㉡은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린다고 볼 수 없다.
- ⑤ 군역 면제라는 양반의 특권은 그대로 존재하였으므로 ㉡에서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15 |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 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으며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에는 동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3문단에 따르면, 농공상도 사 집단이 될 수 있게 했지만 노비는 제외하였으므로 ㉡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백성들을 사·농·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 4문단에서 사와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했으므로 ㉠에 동의할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그는 신분 세습을 비판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정약용과 입장이 같으므로 ㉡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유형원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한 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사를 구성하고자 했으므로 ㉡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4문

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고자 하였고 2문단에 따르면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하였으므로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에 동의했을 것이다.

- ④ 정약용은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는 동의했을 것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지만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16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⑤

정약용과 유형원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기>의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권력층과 그 이외 계층 간의 계급 간 차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계급 간 차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능력에 따른 계급 간 차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와 (가)의 3문단과 (나)의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기>와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보기>와 (나)의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①

㉠는 [...으로] 형식으로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는 문맥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③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④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⑤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18~21]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한 양반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을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다. 전체 내용은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적강하여 백선군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자 백선군이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 살아난 숙영이 선군과 행복한 삶을 살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효를 요구하는 부모에 맞서 자식이 애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의 변모 양상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현실의 장애를 극복한 남녀의 숭고한 사랑

18 | 등장인물 이해하기

정답 : ⑤

춘양은 아버지의 소식을 담은 편지를 받고 울면서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닢에 대고 통곡하고 편지로 닢을 덮는 행동으로 표출하며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를 어머니의 영전에서 읽은 사람은 할머니 정씨이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동생을 막아서지도 않았다.

19 | 발화의 의도 파악하기

정답 : ②

선군은 편지에서 받는 이(‘낭자’)를 만나고 싶지만 ‘천리’에 가려있는 상황이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는 받는 이의 안부를 물은 뒤 곧이어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낭자의 그림을 보고 병이 들었는지 걱정한 것이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있으나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 ⑤ [A]에서 잔치를 알아서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이주길 바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B]에서는 옥체를 보존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0 | 발화 맥락의 의도 파악하기

정답 : ③

낭자는 자신의 운명이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낭자와 선군이 천명으로 승천하는 상황에 대해 상공과 정씨 부인이 한탄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발화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편지의 수신인이 낭자임을 말해 주며 춘양이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할머니 정씨가 낭자의 자식들인 손주들(춘양과 동춘)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라며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라고 말하며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상공 부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21 |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없으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카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시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27] (갈래 복합) (가) 박용래, ‘월훈’, (나) 김영랑, ‘연1’ (다) 서영보, ‘문의당기’

[자문 해설]

(가) 박용래, ‘월훈’

- **해제** : 이 작품은 적막한 산골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노인이 사는 곳은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의 ‘외딴집’으로,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노인은 밤에 잠에서 깨어 무나고 구미를 꺾기도 하고, 귀를 모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는 모두 외로운 처지의 그가 느끼는 무료함,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서 ‘짚오라기’, ‘이름 모를 새’,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이다. 또 달무리라는 뜻의 ‘월훈’으로 사상을 종결한 것도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

(나) 김영랑, ‘연1’

- **해제** : 화자는 아스푸레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화자는 하늘에 뜬 연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어린 시절, 바람으로 인해 연이 끊어지자 서러워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여 졌음을 고려하면 우리 민족의 슬픔을 암시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 **주제** : 어린 시절의 슬픈 기억

(다) 서영보, ‘문의당기’

- **해제** : 신위가 집의 기문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다.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물에 산다고 말한다면서 신위의 발상이 타당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신위가 천하의 지도를 보기 전에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와 같다고 말한다.
- **주제** :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

22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 ②

(가)는 마을, 집집마다의 모습, 외딴집, 외딴집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아슬아슬 떠 있던 연의 모습을 묘사하여 어린 시절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는 지도의 모습을 묘사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다)는 ‘어찌~의심을 품겠소?’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가)와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다)에는 신위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를 보고 ‘나’가 말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의 말은 ‘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말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과거 회상은 (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나)가 과거를 통해 현재 상황의 원인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
- ⑤ (다)에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가)와 (나)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 없다.

23 |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

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척척산중에도 없는 마을’이라고 하였으므로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구절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적막한 산골 마을’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봉당’, ‘콩깍지’ 등의 향토적 이미지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노인의 모습이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밝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우는 상황과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 ④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냇’은 ‘붉은 발자욱’과 색채 대비를 이루지만,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있었다’고 하였으므로 ‘하얀 냇’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외로움과 눈물은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연같이’, ‘연실같이’에서 내 어린날의 아스푸레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주석에 따르면 ‘조매롭고’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끊어지던 날의 고조된 정서, 즉 ‘서러워’, ‘울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적절하다.
- ③ ‘울다’는 연실이 끊어지던 날의 상황이고, ‘눈물이 고이있었다’ 또한 내 어린 날의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 ⑤ 1연의 ‘내 어린 날’은 아스푸레한 과거를 의미하며, 4연의 ‘내 어린 날’은 외로이 자랐던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 2연과 3연의 ‘내 어린 날’에는 연을 날리고, 연실이 끊어지던 날의 기억이 소환되어 있

다. 화자는 연을 날리던 기억을 통해 아스푸레한 유년 시절, 외로이 자랐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25 |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③

‘아슬아슬’은 주석을 참고하면 ‘아슬아슬’이라는 의미이므로 연을 바라보는 불안한 심정과 관련된 시어이고,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꼴깍’은 적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소리나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로, 여기에서는 의태어로 사용되어 해가 순식간에 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후루룩’은 새가 날개를 치는 소리나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로, 여기에서는 노인이 소리를 듣는 상황이므로 의성어로 사용되었다. 노인은 새의 날갯짓 소리를 듣고 처마 기에 나래 묻는 새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라고 하였으므로 ‘희끗희끗한’이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조마조마’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함을 뜻하므로, ‘외로이’ 자랐고 ‘눈물’이 고였던 유년 시절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6 | 내용 이해하기 정답 : ②

신위는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의 지도를 보고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에 ‘나’는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섬사람 중에서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도 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과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은 모두 물에 사는 사람이며, 의미가 다르지 않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신위의 편지에 따르면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사고의 전환이 확인된다.

- ③,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④), 섬사람 중에 집을 짓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물에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이 섬사람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③).
- ⑤ 윗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반걸음을 옮긴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은 오십보백보로 유사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27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정답 :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중에 문 닫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파도’와 ‘깊은 물’, 즉 바다를 가까이 접하지 않아도 물에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모습을 의미하는 유사한 표현들이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환경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이나 ‘갯 속 같은 마을’은 모두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구절이므로 얕음과 깊음이 대비된다고 볼 수 없고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 ② 무우와 고구마에서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다 안의 육지라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신위가 천하의 지도를 본 후에 깨달은 것이므로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 ⑤ ‘모과빛’과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라고 볼 수 있으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지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크고 작음의 대비라고 보기 어렵다.

[28~31] (현대 소설) 양귀자, ‘월미동 시인’

[지문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의 『월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

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월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28 | 인물과 사건 파악하기 정답 : ①

‘나’가 김 반장네 가게에서 일하는 ‘몽달 씨’를 보고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 것은 아니다.
- ③ ‘나’는 ‘내 친구’인 김 반장이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여 좋은 친구로 생각했고, 그와 의자에 앉아 킁킁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냈다고 했으므로 그가 반동거리는 행동을 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내가 그 행동에 당황한 것은 아니다.
- ④ ‘선옥’은 ‘지리지 궁상이 지겨워’라고 하였으므로 집안 형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라고 상상하고 있으므로 집안 형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고 여겼고,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구라 여긴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29 |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 ④

㉔의 발언 뒤에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를 통해 상대의 반응이 다소 예상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으나, ㉔의 질문은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몽달 씨’를 다그치기 위한 발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또’라는 표현에서 상대를 못마땅해 하는 발
언임을 알 수 있고, ㉡에서 몽달 씨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 아래 ‘몽달 씨가~행복하게 웃었다’와 ㉣에서
‘시를 읽으면서~금방 나왔지’를 보면, 인물이 시
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아래 부분에서 ‘나’는 ‘몽달 씨의~정신 상태에
실망’했고 ㉥의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새
로운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와 ㉧는 질문을 통해 ‘나’가 ‘몽달 씨’를 계속 다
그치고 있으므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다.

30 | 인물의 행위 이해하기

정답: ⑤

‘여기’ 김 반장네 슈퍼에서 목격된 ‘그날’ 몽달 씨를
내쫓는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 선옥이 언니가 떠나
서 나에게 다소 통명스럽게 대했던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의 ‘친구’에서 ‘나쁜
사람’으로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깔깔거렸던
행위는 김 반장이 몽달 씨를 내쫓는 ‘그날’ 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몽달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 이
루어지고 있고,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
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
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나중 시간대에 이
루어진다.

31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④

‘아무튼~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에서 논리
적 연관을 무시하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서술자
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와 다른 각
도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김 반장의 태도 변화가 선옥 언니가 서울로 떠나
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여 독자가 서술
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몽달 씨의 안색이 핏색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열
흘간이나 누워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고 논
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단정하여 서술자와 다른 각
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와
같이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32~34] (고전 시가) (가) 정철, ‘성산별곡’, (나)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지문 해설】

(가) 정철, ‘성산별곡’

• 해제 : 이 작품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
라 변하는 성산(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사’에서는 김성원의 풍류와 식영
정의 자연경관을 예찬했고, ‘본사’는 성산의 아름다움을
계절별로 노래한 것이다. ‘결사(結詞)’에서는 독서를 하며
지내는 산중생활과 뜬구름 같은 세상에 술과 거문고를
즐긴다며 진선(眞仙) 같은 생활의 즐거움을 읊었다. 표현
면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고사의 인용이 많다.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
를 그리고 있다.

• 주제 :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사는 풍류적 삶

(나)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 해제 : 매를 길들여 꿩 사냥을 하고 말을 매어 두고 고
기잡이(낙시)를 즐기면서 활달하고 흥겹게 놀고 있는 화
자의 삶을 제시되어 있다. 사냥과 고기잡이 하면서 현실
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풍류를 즐기는 삶이 멋스럽게 표
현되어 있다.

• 주제 :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며 느끼는 현실의 즐거움과
풍류

32 |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활활 설살’, ‘꽝꽝쌔쌔’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

물이 말의 갈기를 솔질한 뒤 금잔 뒤 발에 말 말뚝을 박는 역동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영탄적 표현(‘헌사할샤, 하도 할샤, 험하 구나, 익었느냐’)이 드러나 있으나 인물에 대한 그 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
- ③ (가)에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나)의 초장에서는 임의 집에서 행위가 드러나 있고 중장에서는 시냇가에서의 행위가 드러나 있 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중장에서 고기를 낚고 버들가지에 꿰어 물 에 눌러 놓고 선관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는 부분에서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가)의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 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에서 대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의 대조적 속 성보다는 유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에서 대구를 사용 하고 있으나 대상의 유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 ④

화자가 서책을 읽고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 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며 ‘시운’의 ‘흥 망’에서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발 견하고 모를 일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의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화자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즉 변화가 심한 인간사 즉 역사의 흥망성 쇠를 수용하지 못하고 애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정답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나)의 ‘생 매’는 꿩 사냥을 보내기 위해 화자가 잡아 길들인 것으로, 사냥의 흥겨움과 관련되는 것일 뿐 고고한 취향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선택(화법과 작문) 해설

[35~37] (화법)

35 | 말하기 전략 이해하기 정답 : ②

1문단에서 말하기의 중심 소재인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발표 내용의 제 시 순서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에서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균사’의 정의를 제시했으므로 적절 하다.
- ⑤ 3문단에서 ‘균사’를 ‘다리’에 빗대어 표현하였으 므로 적절하다.

36 | 자료 활용하기 정답 : ④

[화면 2]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서로 양분을 교환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림으로 ㉠의 화면으로 제시된 다.

오답 피하기

- ① [화면 1]은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곰팡이의 균사 그림으로 ㉡의 화면으로 제시된다. 감싸는 정도가 부위마다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다.
- ② [화면 1]은 식물의 양분이 다른 식물에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 ③ [화면 2]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서로 양분을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의 화면으로 제시된다.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 ⑤ [화면 3]은 식물 뿌리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곰팡 이와, 겉면이나 세포를 감싸는 곰팡이를 구별하고 있는 그림으로 ㉢의 화면으로 제시된다. 여러 식 물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 시된 것이 아니다.

37 | 청중의 질문 추론하기

정답 : ③

㉠에 대한 대답으로 ‘곰팡이나 식물에 눈이 있어 서로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으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에 들어가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②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 작용만 언급되었을 뿐 다른 생물과의 상호 작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④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⑤ 곰팡이와 연결 여부에 따른 식물 성장 속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38~42] (화법, 작문 통합)

38 | 발화 맥락 이해하기

정답 : ④

[B]에서 진행자는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논의할 사항(‘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진행자는 ‘전문가 1’의 질문이 아닌 제안을 요약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과 의견에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제안을 종합하거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지는 않았다.

39 | 말하기 계획 이해하기

정답 : ⑤

전문가 2가 대답을 준비하며 쓴 ㉠의 메모 내용(‘박물관이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함’)은 (가)의 전문가 2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이나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전문가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전문가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전문가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전문가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 담화 내용 반영하기

정답 : ①

(나)의 대화에서 ‘학생회장’은 (가)의 방송 대담에서 ‘전문가 1’이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효과로 제시되며 반영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견을 밝히며 증축될 박물관의 향후 전망으로 제시하였다.
- ③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 ④ ‘학생 1’의 체험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라는 건의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은 아니다.
- ⑤ ‘전문가 2’는 역사학 관련 진로 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다.

41 | 발화의 의도 이해하기

정답 : ⑤

(다)의 ㉠에서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의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체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②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 ③ 체험 중 우려되는 안전사고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 기회 제공은 ㉠에 제시된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아니다.
- ④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이점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으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42 | 초고 수정하기

정답 : ①

3문단에는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②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초고에 있었던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는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3문단의 건의문에는 삭제되었다.

[43~45] (작문)

43 | 초고 계획하기

정답 : ③

3, 4문단에서 시기별로 시행된 제도를 제시하였을 뿐, 불량 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에서 구체화하였다.
- ② 2문단에서 구체화하였다.
- ④ 3문단에서 구체화하였다.
- ⑤ 3, 4문단에서 구체화하였다.

44 | 조건에 맞는 결론 작성하기

정답 : ⑤

조건에 제시된 식품 산업의 변화로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가 제시되었고,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는 ‘우리 건강의 지키는 첫걸음이다’에 제시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식품 산업의 변화는 일부 제시되었으나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 ② 식품 산업의 변화는 일부 제시되었으나 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다.
- ③ 식품 산업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식품 산업의 변화가 일부 제시되었으나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45 | 자료 활용 방안 이해하기

정답 : ⑤

ㄱ-2 통계자료를 보면 불량 식품 적발 유형으로 이물 검출이 과대광고보다 빈도가 높다. ㄴ의 신문 기사는 허위 과대광고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있으므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ㄱ-2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물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4문단의 추가 자료로 적절하다.
- ② ㄴ 신문 기사에서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으므로 2문단의 추가 자료로 적절하다.
- ③ ㄷ 전문가 인터뷰에서 ‘불량 식품은 ~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했으므로 1문단의 추가 자료로 적절하다.
- ④ ㄱ-1은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고 ㄷ은 전담 관리원의 활동으로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3문단의 추가 자료로 적절하다.

[35~39] (언어)

35 | 복합어의 구성 이해하기

정답 : ④

‘놀이방’의 직접 구성 요소는 ‘놀이’와 ‘방’이고, ‘놀이’는 ‘놀-’과 ‘-이’라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는 ‘단’과 ‘맛’이고, ‘단’은 ‘달-’과 ‘-ㄴ’이라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용’과 ‘꿈’이다. ‘용’은 한 개의 자립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 것이지만, ‘꿈’은 ‘꾸-’와 ‘-ㅁ’으로 분석되므로 두 개의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② ‘망치질’의 직접 구성 요소는 어근인 ‘망치’와 접사인 ‘-질’이므로 ‘망치질’은 파생어이다. 그러나 ‘봄날’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각각 어근인 ‘봄’과 ‘날’이므로 ‘봄날’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 ③ ‘자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자은’과 ‘이’이다. ‘이’는 대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이지만 ‘자은’은 의존 형태소인 ‘짓-’과 ‘-은’이 결합한 것으로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⑤ ‘꽃고무산’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과 ‘고무산’이다.

36 | 제시문에 근거하여 자료 이해하기

정답 : ③

‘직산’은 ‘직접’과 ‘선자’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직산’은 ‘선자’의 일종이므로 ‘선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오답 피하기

- ① ‘흰자’는 ‘흰자위’에서 형태가 줄어든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흰자위’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 ② ‘공수’는 ‘공격’과 ‘수비’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공격’이나 ‘수비’와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④ ‘민자’는 ‘민간’의 앞부분과 ‘투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민자’는 ‘투자’의 일종이므로 ‘투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⑤ ‘외화’는 ‘외국’의 앞부분과 ‘영화’의 뒷부분이 결합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외화’는 ‘영화’의 일종이므로 ‘영화’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37 | 음운 변동 이해하기

정답 : ⑤

‘버들잎[버들립]’은 ‘앞’에 ‘ㄴ’이 첨가된 후 이 ‘ㄴ’이 앞 음절 종성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된다. 그리고 ‘앞’에서 종성 ‘ㄲ’이 ‘ㅂ’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므로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또한 ‘덧입에[던니버]’는 ‘앞’에 ‘ㄴ’이 첨가되고 ‘덧’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ㅅ’이 ‘ㄷ’으로 교체된다. 이후 뒤 음절 초성인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되므로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재밋네[재민네]’는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 음절 초성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되므로(비음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한편 ‘엄매네[엄매네]’는 ‘앞’의 ‘ㄹ’이 탈락하고(자음군 단순화) ‘ㄱ’이 뒤 음절 초성의 영향으로 ‘ㅇ’으로 교체되므로(비음화)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② ‘불이익[불리익]’은 ‘아’에 ‘ㄴ’이 첨가된 후 앞 음절 종성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되므로(유음화)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한편 ‘견인력[겨넨력]’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ㄹ’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 한 번이 전부이다. ‘견인’이 [겨넨]으로 소리 나는 것은 연음이므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똑같이[똑까지]’는 ‘ㄱ’이 ‘ㄱ’로 교체되고(된소리되기) ‘ㅌ’이 ‘ㄷ’로 교체되므로(구개음화) 교체가 두 번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한편, ‘파묻힌[파무친]’은 ‘ㄷ’과 ‘ㅎ’가 ‘ㅌ’로 축약되고, 이 ‘ㅌ’이 뒤에 오는 ‘ㅣ’의 영향으로 ‘ㄷ’로 바뀐다(구개음화). 따라서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다.
- ④ ‘옴조례[옴조례]’는 ‘ㄹ’이 탈락하고(자음군 단순화) ‘ㄲ’이 ‘ㅂ’으로 교체되며(음절의 끝소리 규칙) ‘ㅅ’가 ‘ㅆ’로 교체되므로(된소리되기)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한편, ‘겉늬어[건늬게]’는 ‘ㅌ’이 ‘ㄷ’로 교체되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비음화). ‘늬어’가 [늬게]로 소리 나는 것은 연음이므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38 | 피동·사동에서 높임 표현 이해하기 정답 : ②

㉔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동생에게’는 ‘할머니께’가 되고, ‘읽혔다’라는 표현을 ‘읽으시게 했다’라는 장형 사동으로 바뀐다. ‘읽혔다’에 ‘-사-’를 넣으면 ‘읽히셨다’가 되는데, 이는 문장의 주어인 ‘나’를 높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가 되고 ㉔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므로 적절하다.
- ③ ㉔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가 되므로 적절하다.
- ④ ㉔에서 ‘업었다’를 ‘업고 있다’로 바꾸면 업는 동작이 완료된 후에 계속 업고 있다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㉔에서 ‘업혔다’를 ‘업히고 있다’로 바꾸면, 업히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⑤ ‘업었다’를 ‘업고 있다’로 바꾸거나 ‘읽혔다’를 ‘읽히고 있다’로 바꾸면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39 | 중세 국어의 문장 성분 이해하기 정답 : ①

부사어와 관형어가 부속 성분에 해당하므로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나, 체언과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찾으면 된다. ㉔의 ‘바르래’(바를+에)는 현대어로 ‘바다에’이므로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㉔의 ‘中國에’는 현대어로 ‘중국에’이므로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㉔의 ‘生人인’는 현대어로 ‘생인의’이므로 체언과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㉔ ‘子息이’와 ‘양직’(양직+이)는 현대어로 각각 ‘자식이’와 ‘모습이’이므로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주성분에 해당한다.
- ㉔ ‘내’(나+이)와 ‘네’(나+이)는 현대어로 각각 ‘내가’와 ‘네가’이므로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주성분에 해당한다.

[40~45] (매체)

40 | 의사 소통 방식 파악하기 정답 : ⑤

학생회장이 화면으로 제시한 것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인 설문 조사 결과이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고 학생들’이라고 학교 명을 언급하여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서 현재 접속자 수를 밝히며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늘어났음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학생회장은 ‘동주 학생’, ‘다예 학생’을 언급하며 실시간 대화창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1 | 매체 수용자들의 태도 파악하기 정답 : ②

다예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학생회장의 말을 듣고 그 원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고 추측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말에 공감함을 표하고 있다.
- ③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뿐,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 ④ 현지는 학년별 학습실 사용 요일에 대한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1학년이 금요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을 뿐,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한 것은 아니다.
- ⑤ 연수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것은 아니다.

42 | 매체 자료 제작하기 정답 : ⑤

(나)에서 ‘학생회 공식 카페 가기’라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다. (나)에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학생회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나) 상단에 방송 화면에 나왔던 표의 일부를 제시하고 ‘요일별 구분을 선택한 이유가 의아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학생회장이 ‘학생회, 힘내세요!’라는 다예 학생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현지’나 ‘연수’가 궁금해하는 것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나)에서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반응~아쉬웠어요.’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 궁금해할 친구도 있을~ 설문 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가)에서 화면에 카페 주소를 자막으로 나가게 하였는데, 이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우므로 (나)에서는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3 | 매체 언어의 표현 이해하기 정답 : ①

부사 ‘직접’은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의 공약 진행 상황에 관해 학생회장이 전달할 것임을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 ②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재를 쓸 수 있어서’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도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른 학습실 사용 신청이 언제부터인지를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㉔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표현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사용 원칙 적용 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이므로 적절하다.

44 | 매체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 ③

(나)는 게시판이므로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지 않지만, (가)는 검색, 대출 조회/연장, 대

출 예약, 오디오 북, 추천 도서, 신간 도서, 인기 도서 보기 등 도서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 ② 게시물 수정 기능이 제공되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 ④ (가)에서는 ‘대출 조회/연장’ 메뉴를 통해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도서 검색 기능이 제공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45 | 매체 이용자의 상호 작용 이해하기 정답 : ④

학생이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을 앱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서가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을 눌러 이용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은 ㉔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㉔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학생이 휴관 안내 설명에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사서가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란다고 하였으므로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사서가 추천 도서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사서가 인기 도서의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린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해설 동영상 보기]

이번 시험의 해설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